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했습니다(27, 31, 40, 46절). 그들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고 합니다.(40절) 본문을 보면, 봉헌식이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찬양대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성벽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2단계는 그들을 둘로 나누어 성벽을 행진하게 합니다. 3단계는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봉헌식 순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 삶에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과정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신자리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성벽위에 세웁니다.(31절 ‘오르게 하고’) 성벽이 완공되고 나면,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살지 않고 성벽 안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성벽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걸어 다니다 보면 성벽을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 섰을 때, 무엇을 가장 느꼈을까요? 무너져 있던 성벽이 높이, 튼튼히 세워졌다는 것을 가장 생생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연히 과거를 돌아보고, 성벽을 세워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수고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찬송을 하며, 성벽을 돌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50개의 구역을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에 52일간 집중하여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라는 것이 나 혼자, 혹은 나의 팀만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라고 쌓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성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걸으며, 나의 수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내가 받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헌신하고 수고했기에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셋째,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드림을 통해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표현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는 가끔 “꼭 말해야 아냐?”고 이야기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과 감사는 표현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레위인들 중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27~29절) 봉헌식의 모든 진행 순서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였습니다. 봉헌식의 마지막은 감사를 드림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44~47절)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제물, 처음 익은 것, 그리고 십일조를 드립니다.

성벽 위에 올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벽을 걸으며 함께한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니 감사가 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마음과 생각을 차고 넘쳐 입술로 찬양으로, 물질의 드림으로 표현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1/22(월)	11/23(화)	11/24(수)	11/25(목)	11/26(금)	11/27(토)	11/28(주일)
행 13-15	행 16-18	행 19-21	행 22-24	행 25-27	행 28, 롬 1-2	롬 3-5

QT

이번 주 QT 말씀

11/22(월)	11/23(화)	11/24(수)	11/25(목)	11/26(금)	11/27(토)	11/28(주일)
욥 29:18-25	욥 30:1-15	욥 30:16-31	욥 31:1-23	욥 31:24-40	합 1:1-17	합 2:1-8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회복해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3. 내 주변에서 함께해 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나누어 주세요.
4.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더욱 표현해야 하는 결단을 나누어 주세요.